



터키 페네르바체SK에 입단한 김민재가 23일(한국시간) 안탈리아스포르와 홈경기에서 중앙 수비수로 선발 출전해 팀이 2-0으로 승리하는데 힘을 보태며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사진제공 | 페네르바체SK 트위터

김민재 터키리그 데뷔전 탄탄한 수비 팀 승리 기여

훈련 1주일만에 합류...공중볼 경합·태클 최다
평점도 두번째로 높아...벤투 감독 "발전 기대"

김민재(25·페네르바체SK)가 성공적으로 유럽 무대 데뷔전을 치르며 9월 시작하는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에서의 활약을 예고했다.

김민재는 23일(한국시간) 터키 이스탄불 쉬크뤼 사라 줄루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2022시즌 터키 쉬페르리그 2라운드 안탈리아스포르전에 중앙수비수로 선발 출전해 탄탄한 수비력으로 팀의 2-0 승리에 기여했다.

14일 베이징 귀안(중국)을 떠나 페네르바체에 공식 입단한 김민재는 팀 훈련에 합류한지 1주일여 만에 데뷔전을 치렀다. 20일 HJK헬싱키(핀란드)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경기는 엔트리에 등록되지 않아 결장했지만 리그에서 선발 출전했다.

김민재는 선발 출전 선수들 중 가장 많은 공중볼 경합(6회), 태클(4회)을 성공시켰다. 후반 12분엔 코너킥 상황에서 공격에 가담해 골문으로 향하는 헤더 슈팅을 때려 데뷔골 기회를 잡았지만 공이 골라인을 넘어가기 직전 수비수가 걷어냈다.

축구통계매체 '후스코어드'는 김민재에게 페네르바체 선수들 중 2번째로 높은 평점 7.6을 부여했다. 김민재의 활약 덕에 무실점으로 경기를 운영한 페네르바체는 후반 막판 마하지즈와 에네르발렌시아의 연속골로 승리를 챙겼다.

성공적으로 유럽 무대 데뷔전을 치른 김민재의 활약은 다음달 월드컵 최종예선에 나서는 벤투호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될 전망이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23일 발표된 국가대표팀 명단에도 변함없이 김민재를 포함시켰다. 김민재는 올해 실전을 많이 치르지 못했다. 지난 6월 월드컵 2차예선 2경기, 중국슈퍼리그(CSL) 2경기 등 공식전을 4번밖에 소화하지 않아 심전감각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지만 터키 리그 데뷔전을 통해 이를 불식시켰다.

"프리시즌에 경기를 많이 뛰진 않았지만 첫 경기를 소화했다. 특징과 장점을 잘 아는 선수로 대표팀에 매우 중요한 선수"라며 김민재를 평가한 벤투 감독은 "유럽의 좋은 팀에서, 좋은 지도자와 함께 그의 장점을 잘 발전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승우 기자 rau1649@donga.com

▶'선두 독주 KT, 흔들리지 않는 승리 원동력' 1면에서 이어집니다

타선도 든든하다. 팀 OPS(출루율+장타율) 0.750으로 리그 5위, 평균수준이다. 하지만 득점권 OPS는 0.829로 1위다. 수지 자체가 훌쩍 높아진다. 타자들은 득점권만 되면 힘을 낸다. 팀 WPA(승리확률기여도·Win Probability Added) 역시 6.31로 리그 1위. 클래식 지표와 세이버메트릭스 스탯을 모두 살펴봐도 찬스 집점력이 높다는 의미다. 자연히 리그 최다 역전승(27승), 최소 역전패(13패)로 이어진다. 이강철 감독의 3년차, 팀 빌딩은 완성단계다.

꾸준히 로테이션을 돌아주는 탄탄한 선발투수. KT의 가장 큰 무기다. 하지만 144경기 전부 선발투수의 컨디션이 좋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긴다. 이강철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있다.

11년만에 메이저 무관...한국여자골프 왜?

18년만에 '한국선수 톱10 진입 0명'
6년연속 최다우승국...올해 3승 뿐
압도적 지배력 잃고 강국 위상 흔들
골프계 인사 "간절함 예전만 못하다"

2011년 이후 매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한국이 11년 만에 '메이저 무관'으로 전락했다.

김세영(28)은 23일(한국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의 커누스티 골프 링크스(파 72)에서 끝난 시즌 5번째이자 마지막 메이저대회 AIG 여자오픈(총상금 580만 달러·68억2000만 원)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3개를 맞바꾸며 최종합계 6언더파 282타를 기록했다. 1라운드 공동 선두에 올랐던 김세영은 2라운드 공동 3위, 3라운드 공동 8위에 이어 공동 13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톱10에 들지 못했지만 이번 대회에 나선 한국 선수 14명 중 가장 좋은 성적이다. 이정은(6(25)은 합계 2오버파 공동 48위, 박인비(33)는 3오버파 공동 52위에 그쳤다.

2010년 메이저대회에서 1승도 거두지 못했던 한국은 2011년 US여자오픈에서 유소연(31)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뒤 3승을 기록한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간 한 차례 이상 메이저 챔피언을 배출했다. 하지만 올해는 5개 대회에서 무관에 그쳤다. 메이저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톱10에 단 한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 역시 2003년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현 ANA 인스퍼레이션) 이후 18년 만이다.

지난해 7승을 합작하며 최근 6년 연속 LPGA 투어 시즌 최다 우승국 영광을



LPGA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AIG 여자오픈에서 역전 우승 기대를 모았던 김세영이 13위로 대회를 마감하면서, 한국여자골프는 11년만에 메이저 무관에 그쳤다. 최종라운드 17번홀에서 티샷을 하는 김세영. AP뉴시스

안았던 한국은 올해 박인비와 고진영, 김효주(이상 26)가 각각 1승씩을 거두며 '고자' 3승에 그치고 있다. 미국(7승)은 물론 태국(5승)에도 밀린다. 도쿄올림픽에서도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최근 AP 통신의 평가대로 한때 압도적 지배력을 자랑했던 '여자골프 강국' 한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여자골프계 인사는 고진영과 김효주

가 AIG 여자오픈에 뚜렷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선수들의 간절함이 예전만 못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AIG 여자오픈 우승트로피의 영광은 안나 노르드크비스트(스웨덴)가 가져갔다.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로 3타를 줄인 노르드크비스트는 최종합계 12언더파 276타로 공동 2위 조지아 홀

연도	우승자	메이저대회	메이저 순위
2011년	유소연	US여자오픈	1승
2012년	신지애	브리티시 여자오픈	3승
	유선영	ANA인스퍼레이션	
	최나연	US여자오픈	
2013년	박인비	ANA인스퍼레이션/ KPMG워민스 PGA챔피언십/ US여자오픈	3승
2014년	박인비	KPMG워민스 PGA챔피언십	2승
	김효주	에비앙챔피언십	
2015년	박인비	KPMG워민스 PGA챔피언십/ 브리티시 여자오픈	3승
	전인지	US여자오픈	
2016년	전인지	에비앙챔피언십	1승
2017년	박성현	US여자오픈	3승
	김인경	브리티시 여자오픈	
	유소연	ANA인스퍼레이션	
2018년	박성현	KPMG워민스 PGA챔피언십	1승
2019년	이정은	US여자오픈	3승
	고진영	KPMG워민스 PGA챔피언십/ 에비앙챔피언십	
2020년	김아람	US여자오픈	3승
	김세영	KPMG워민스 PGA챔피언십	
	이미림	ANA인스퍼레이션	

(영국), 리제 샬라스(미국), 마들렌 삭스트롬(스웨덴·이상 11언더파)를 1타 차로 제쳤다. 우승상금은 87만 달러(10억 2000만 원). 2009년 LPGA 챔피언십, 2017년 에비앙 챔피언십에 이어 개인 세 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넣으며 투어 통산 9승을 달성했다.

최근 3년 간 무기력과 피곤감을 일으키는 단행중에 갈려 고생했던 노르드크비스트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 병이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른다. 내가 다시 우승할 수 있을지 의심했다"며 "이렇게 우승을 하고 보니 그만큼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고, 지난 어려움도 값지게 여겨진다"고 했다. 34살 베테랑의 굳은 의지와 간절함이 묻어났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삭스트롬 티샷볼 갈매기 황당 드리블

부리로 홀에서 20m 멀리 물고갈
벌타없이 세컨샷... 공동 준우승



볼을 부리로 물면서 페어웨이를 돌아다니던 갈매기는 홀에서 22m 떨어진 지점까지 볼을 옮겨놓고 사라졌다. 규정상 새나 동물이 움직인 볼은 무벌타로 원위치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23일(한국시간) 스코틀랜드 커누스티 골프 링크스에서 끝난 AIG 여자오픈 4라운드.

1번(파4) 홀 페어웨이에서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다. 마들렌 삭스트롬(스웨덴)이 티샷한 볼이 페어웨이에 떨어지지 않자, 근처에 있던 새가 기다렸다는 듯 부리로 공을 집고 떨어뜨리기를 몇 차례

반복하다 원래 위치와 다른 곳에 옮겨 놓은 것이다. 근처 바닷가에서 날아온 갈매기로 보이는 새는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볼을 문 채 날갯짓을 하기도 했고, 축구의 '드리블'처럼 볼을 갖고 장난치기도 했다.

현장에 있던 코스 해설자는 "새가 뒤로 볼을 가져가면서 홀에서 22m 가량 멀어졌다"고 밝혔다. 갈매기가 공을 옮기는 장면은 영상을 통해 확인이 됐고, 목격자도 많아서 삭스트롬은 원래 볼이 떨어진 곳에 '벌타없이' 볼을 옮겨 놓

고 세컨 샷을 진행했다. 골프 규칙은 새나 동물이 움직인 공이 확인되면 무벌타로 원래 위치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

좀처럼 보기 힘든 '황당 해프닝'을 겪은 삭스트롬이 홀에서 파를 한 뒤 결국 1타 차 공동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도현 기자

세븐 이어 브결까지... 'NFT'에 뛰어드는 케이팝 스타들

(브레이브걸스) (Non Fungible Token/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 자산 의미)

단 한 사람만 구매...경매 재판매 가능
선미·어반자카파 소속사도 NFT 계획
이수만 "콘텐츠, 제3의 화폐가 될 것"



브레이브걸스

최근 그룹 브레이브걸스의 신곡 일러스트가 아직은 일반에 낯선, NFT로 소개됐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내놓은 것으로, 두나무는 향후 관련 콘텐츠를 계속 선보일 계획이다.

두나무는 이에 앞서 6월 가수 겸 음악프로듀서 박진영의 JYP엔터테인먼트(JYP)와 손잡았다. 양측은 NFT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업무제휴를 맺었다. 국내 대형 기획사로는 처음으로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JYP는 JYP스리식스티를 자회사로 설립해 지식재산권(IP) 기반 사업도 추진

극 '모나리자'의 음원을 NFT 오픈마켓 플랫폼 NFT메니아를 통해 내놨다. NFT는 단 한 사람만 구매한 뒤 경매를 거쳐 재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세븐의 음원 NFT는 이미 최저가 1000만원으로 경매를 진행해 최근 마감했다. 또 지난해 '범 내려온다'로 화제를 모은 이남치밴드도 이를 NFT화해 NFT메니아를 통해 선보였다.

이처럼 NFT가 케이팝 아티스트 등 콘텐츠와 팬들이 소통하는 또 하나의 창구로 떠올랐다. 지난달 음반 판매량 조사회사 MRC데이터는 올해 상반기 미국 음악시장 보고서에서 "NFT는 아티스트들의 새로운 수익원이 됐다"고 썼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 Fungible Token)으로 해석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콘텐츠에 복제가 불

가능한 고유의 인식값을 부여해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세상 하나뿐인 콘텐츠 자산'으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팬덤이 두터운 케이팝 팬들에게 더욱 소구할 수 있다는 판단이 확산하고 있다. '세상 하나뿐'이라는 희소성과 경매를 통한 재판매 등 '콘텐츠 자산'으로 수익률을 확보하고, 팬과 스타가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엔터테인먼트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총괄프로듀서는 지난달 세계문화유산포럼 기조연설에서 "블록체인의 시대에 NFT로 알 수 있듯, 콘텐츠가 제3의 화폐가 될 것"이라고 말할 바 있다. 다양한 케이팝 콘텐츠를 새로운 유통 경로에 실어 나르며 또 하나의 수익원을 갖게 되는 과정에 대한 언급이기도 하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